월운스님은?

후학양성 · 경전번역 매진

봉선사 조실이자 동국역경원장인 월운 스님은 1928년 경기도 장단에서 태어났다. 49년 운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56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57~61년 통도사 강사를 지냈다. 63년 마산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65년 조계종 역경위원에 선임됐으며, 79~93년 중앙승가대 교수를, 83년부터 현재까지 불교전문통신강원 원장을 맡고 있다. 93년부터 동국역경원장을 맡아왔으며, 주중에는 주로 봉선사에서 후학 양성과 경전 번역에 매진하고, 일주일에 한번 역경원에 직접 나와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스님은 역경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경후원회도 만들었다. 5천여명에 달하는 역경후원자들이 매달 조금씩 정성을 보태고 있다.

봉선사에서 만난 스님은 심지어 지난 37년 동안 〈한글대장경〉에 소요된 원고지 양이며, 동원된 인원, 소요 금액까지 일일이 메모해서 설명하실 정도로 〈한글대장경〉 사업에 대단한 열정을 갖고 계셨다.

스님은 5일 열리는 회향식에서 역경원 창설과 운영에 애를 쓰신 분들의 위패를 모신다는 계획이다.

창설자인 운허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총장이었던 김법린박사, 학문적으로는 물론 정신 ·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탄허, 자운, 청담 스님 등 '역경보살들'의 정신을 이어받자는 의도로 30여분의 위패를 모신다. 또한 스님은 〈한글대장경〉의 전산화까지 다 끝내면 역경 기념비를 세우고 싶다는 소망도 피력했다.





◇월운 스님은 75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부터 후학양성과 경전번역, 못다 한 공부까지 병행하는 등, 엄격하고 철저한 생활로 주위에 귀감을 보이고 있다.

고, 월운스님이 아니고서는 오늘의 〈한글대장경〉이 있을 수 없다.

스님이 평생 역경이라는 외길을 걷게 된 것 또한 은사이신 운허스님의 가르침 때문이다. 스님은 출가 전에 한학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그것을 아는 분들의 주선으로 운허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이 출가할 당시에도 한국불교의 분위기는 참선과 기도가 주류였다. 스님 또한 참선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그런 스님에게 운허스님께선 "경학을 하는 것도 수행의 길이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스님을 이끌었다.

"돌아가신 운허스님은 내가 모시고 지내는 동안에 한번도 거드름을 피거나, 가식적으로 대하거나 하신 적이 없는 분이야. 스님 당시만 해도 불경을 종이에 써서 준다는 것은 쑥스러운 일이었어. 그냥 말로써 법문하고서 '에, 모르느냐?' 하고 그치는 정도지. 근데 그때도 그 어른은 초파일이나 우란분절이 되면 손수 볼경을 프린트 하셔서 나눠 줬어요. 그걸 보면서 법문을 듣게 하고, 집에 가서도 읽을거리가 남게 그렇게 해 주셨던 거야."

솔직 담백하시기로 정평이 나있는 스님은 은사이신 운허스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듯 했다.

스님의 솔직담백한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일화 하나.

수년전 서울의 어느 절에서 백고좌법회를 열었을 때다. 65번째로 스님의 법문 차례가 되어 그 절을 찾았다. 스님은 항상 다른 곳에 법문하러 가기 전에 그 전 법사스님은 어떤 분이고, 청중성향은 어떻고, 어떤 내용으로 법문했는지를 알아보고 자신의 법문 내용을 준비한다. 그런데 그 백고좌법화에서 스님에 앞서서 법문했던 분들이 다들 도가 깊은 고승들인지라 스님은 그분들을 능가할 법문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법회에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도인스님들이 이미 진리의 법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분들 근처도 못 가는지라 그저 제 분수에 맞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부잣집 고랑진미만 드시다가, 오늘은 가난한 집 만나서 우거지탕 밖에 없으니, 어디 한 번 잡숴 보시겠습니까"하고 스님이 말문을 열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참석한 불자들이 다들 좋다고 박수를 쳤고, 스님은 법문을 했다. 그 후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때 백고좌법회에서 감명 깊게 법문을 들었노라며 연락하는 불자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스님은 고맙다고, 도대체 내 법문 중에 뭐가 그리 감명 깊었냐고 묻곤 하는데, 한결같은 대답이 "우거지탕이요!"다.

스님은 "그 자리에서 내 법문을 들었던 불자들이 다른 내용은 기억 못하고 우거지탕만 기억하는 거야. 나, 참!"하고 쑥스러운 듯 여기시지만, 당시의 불자들은 솔직하고 가식 없는 법문과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친근한 월운 스님의 인상을 '우거지탕'이라는 한마디로 가슴깊이 새겨놓고, 두고두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스님은 〈한글대장경〉 1차 번역사업이 끝나고 회향식을 남겨둔 요즘도 여전히 역경에 대한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스님은 새롭게 번역된 〈한글대장경〉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아무리 제대로 된 번역을 했어도 읽는 사람의 수준이 모자라면 알아보기 쉽지 않다는 생각에 〈한글대장경〉에 대한 해설서가 당연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같은 해설서가 나오기 위해서는 경학에 대한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스님의 소신이다.

"제2의 역경사, 강사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사실 잘못된 번역도 많이 나오고, 경학에 대한 전문가가 많이 모자라는게 오늘의 현실이야. 불교 경학을 고전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많이 망가졌지. 내가 주지 하는 동안에도 신경을 쓰긴 썼지만 주지 내놓고는 솔직한 이야기로 대외적 간판은 역경원장이지만, 주로 차세대 강사, 내가 표현하는 말로 '차세대 장경각 주인'을 길러내는 일에 진력해 왔어. 종단 제

> "은사 운허스님 뜻이어 40여년 역경외길 한글대장경 1차 회향"

도상으로 학림이라는게 있어 93년에 학림에 등록해서 1기 6명이 졸업하고, 지금은 27기 8명이 공부하는 중이야."

스님은 후학들이 자신이 못다 한 일을 잘 해 낼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후학 양성을 위해 강단에 선다. 이른 새벽 일어나 예불을 모시고, 조금 앉았다가, 아침 공양을 하고, 7시 반부터 두 시간동안 강의를 한다. 그후에도 그냥 쉬지 않는다. 그 다음날 가르칠 내용을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경전을 뒤져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다가 손님이 오면 차도 한잔 대접한다. 스님은 손님이 찾아와서 머문 시간만큼 잠을 덜 주무신다. 가끔 낮에 너무 많은 손님을 접대하느라 그날 해야 할 공부를 제대로 다 못할 경우 한잠도 주무시지 않고 철야로 공부를 하신다. 올해 75세인 월운 스님의 일과는 이렇게 평범한 듯 하면서도 촌음을 아끼는 스님의 성품따라 철저하게 채워진다.

스님의 손가락에는 구멍이 나있다. 불쑥 내민 오른손 중지의 구멍. 스님 표현이 구멍인데, 사실은 움푹 들어간 그 구멍은 하도 오래 펜을 쥐어서 그 닿은 부분이 속으로 들어가 굳은 살이 박힌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얼마나 많은 경전을 번역하고, 원고를 직접 쓰셨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한글대장경〉 1차 번역 회향식을 앞둔 스님께 소감을 여쭈었다.

"얼떨떨해. 나 혼자 한 게 아닌데 감회가 어디 나 뿐이겠어. 볼 보살님들의 가피로 한 고비는 넘겼는데, 걱정이 많아. 전문으로 경전을 보는 사람이 볼 때 잘못된 게 나올 것이고, 또 모르는 사람은 또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못 알아듣겠다고 불평할거 아냐.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흐뭇해. 욕을 해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 이번 법회는 그동안의 작업을 회향하는 자리이자 방대한 양의 경권으로 간행된 〈한글대장경〉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전산화 작업을 새로 시작하는 뜻깊은 출발의 자리가 되는 거지."

〈화엄경〉에 어두운 밤 보물은 등불이 없으면 볼 수 없다고 했다. 그 어두운 밤을 가는 중생들에게 등불을 밝혀주기 위해, 돌아가신 운허스님의 대를 이어 그 뜻을 충실하게 받들어온 월운 스님. 이제 겨우 등불을 밝혀 놓았지만 손에 쥐고 들고 갈 일이 걱정이라는 스님의 겸허한 말씀에 자꾸 머리가 숙여졌다. 그 등불을 활용하고 안하고는 우리 불자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해 보았다.

글=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현진스님의 스님이야기 **향산스님**

살아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허물없이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삶의 위안이며 등불 같은 존재일 것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향산(香山) 스님은 세속의 깨복쟁이 친구 같은 도반이다. 그를 찾아갈 때마다 둘이서 팔베개를 하고 밤새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헤어지는 일이 또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래서 그를 만나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환해지는 기분이 든다. 걸망 지고 홀로 떠도는 삶이어도 결코 외롭거나 힘들지 않다는 용기가 생긴다. 중노릇 십 년을 넘기면 비로소 도반의 정을 안다더니, 내가 지금 그런가보다. 요즘 들어 도반의 조그만 관심과 잔잔한 손길에도 울컥 가슴이 메어진다.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할 때 나는 크게 몸살을 앓은 적이 있었다. 그 때 간병실에 누워 이불을 덮어 쓴 채 하루 종일 오한에 시달리다가 해질녘에야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깨어보니 옷은 후줄근하게 다 젖어 있었고 누군가가 내 머리맡에 앉아있는 게 보였다. 그는 내가 잠을 자는 동안 줄곧 물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바로 향산 스님이다. 그는 그때 간병(看病) 소임을 맡고 있었는데 환자를 위해 죽을 나르고 약을 지어오는 등의 간

논리정연-해박 '부루나존자 닮아'

항상 헌옷…"옹색해 보이지 않는다"

병인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한 그의 정성 때문이었는지 다음날 몸이 많이 가벼워졌다. 그 때 나는 어렴풋이 도반의 정 같은 걸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소소한 정이 수행 길에서 얼마만큼의 위안과 힘이 된다는 것을 그 때는 알지 못했다. 그 일을 그는 까맣게 잊고 지내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두고두고 그 손길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 일로 인해 아직도 나는 수행길이 지치고 힘들면 그를 찾아 나그네의 시름을 달래고 정을 나누고 있으니까 말이다.

한 때 향산 스님은 오래된 누비옷을 입고 있었다. 옷이 낡아서 군데군데 천을 덧대어 기운 곳이 더 많았던 옷이었다. 은사 스님이 입던 옷이라고 했던 것 같다. 나는 지금껏 그가 새 옷 입는 걸 보지 못했다. 항상 누군가가 입던 헌 옷을 다시 입고 다닌다. 그래서 그에게서 더러 옷맵시가 나지 않을 때도 있다. 바지와 윗도리가 한 벌이 아니라서 작아서 달랑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땐 너무 커서 헐렁해 보이는 까닭이다. 그렇지만 옹색해 보이거나 초라해 보이지 않는 것이 스님의 또 다른 매력이다. 향산 스님을 보면,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지만 수행의 향기는 바람을 거스리지 않고 사방에 풍긴다는 경구의 가르침이 떠오른다.

향산 스님은 참 재미있는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다. '심 목사'라는 별명이 그것인데, 부흥회하는 목사처럼 막힘 없는 그의 언변 때문에 속가 성(姓)을 따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그의 논리는 참 정연하고 해박하다. 그래서 나는 종종 그를 말할 때, 부처님의 십대제자인 부루나 존자를 닮았다고 한다. 부루나 존자는 상대방에게 자기 주장을 강요하기 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일단 인정하고 다음으로 종교심을 싹트게 하는 포교법을 구사하였다고 한다. 말을 잘 한다는 것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일방적 자기 주장은 편견이나 아집에 가깝다. 이런 점에서 향산스님은 백점 짜리 포교사다. 그와 앉아 이야기해 보면 얼마나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가를 알 수 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전도사가 말을 붙여 오더란다. 그래서 당신의 말을 얼마든지 들어 주겠다고 하고, 묵묵히 들어주었다. 한시간 가량 말하던 전도사가 이제 다 끝났다고 일어서려 할 때 이번에는 스님이 그의 허리춤을 잡았다. 이제부터 자신의 말을 들어줄 차례 라며 그를 다시 앉



히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그 때 스님은 내리지도 않고 역을 몇 바퀴 돌면서까지 부처님 말씀을 하였단다. 나중에는 그 전도사가 지쳤다는 듯이 슬그머니 지하철에서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때 스님도 같이 내려 그 사람 집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날 그 전도사에게서 다시는 스님들에게 전도하는 무례를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헤어졌다고 한다.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전도행위에 대한 스님 나름의 일침이었던 것이다.

강원을 졸업하고 스님은 오랫동안 미얀마에서 수행하였다. 동남아 불교 성지를 순례하고 몇 년 뒤 돌아왔을 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깡말라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그는 보현보살의 십대원(十大願)중에 유독 상수불학원(常隨佛學願)을 좋아한다.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보현보살의 서원이 이제는 그의 원력이 된 것 같다.

지금 향산스님은 법주사 강원의 강주(講主)를 맡고 있다. 일찍이 동국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공했던 스님이 학림(學林)으로 들어가 경전을 강의하는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이 시대의 훌륭한 부루나가 되기를 발원하고 또 발원한다.

▩ 월간 '해인' 편집위원

중국 문수도량 오대산·운강석굴 전세기

실크로드에서 저렴한 경비로 알차고 가장 편리하게 다녀올 수 있는 전세기편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문수보살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순례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한 오대산 중대
▶5만 여불의 불상이 모셔진 운강석굴
▶절벽에 제비집처럼 매달린 현공사
▶신라 황룡사9층 목탑의 일면을 엿볼수 있는 중국최고의 응현목탑
▶비구니 스님 300여분이 수행하고 있는 보수사에서 한중친선법회

☞4박5일 69만원!!

순례기간 : 2001년 10월 6일~10일(5일간)
신청기간 : 2001년 9월15일까지

1	10월6일	인천공항 집결/출국수속 후 인천 출발
2	10월7일	태원도착 호텔투숙/조식후 오대산으로 이동, 도착후 불광사 불공삼장이 건립한 금각사, 장엄한 일주문이 있는 용천사 참배
3	10월8일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한 중대 등정, 보수사 한중친선법회, 천년고찰 현통사, 보살정, 탑원사,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조성한 수상사, 오대문수보살을 모신 대라정, 벽산사 등 참배
4	10월9일	오대산 출발 응현목탑, 현공사, 운강석굴 참배후 대동 도착
5	10월10일	대동출발/태원 도착후 고색창연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모신 숭선사, 쌍탑사, 태원 출발/인천 도착

★포함사항 : 항공, 호텔, 식사, 입장료, 비자비, 중국공항세, 보험료, 가이드팁 등
★불포함사항 : 인천공항세
★구비서류-여권만 제출(유효기간이 6개월미만인 분은 연장해야 함)
여권 없는분은 여권용 사진 2매, 주민등록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1통, 인지대 5만원


오대산의 대찰 현통사


운강석굴의 대불


최고 최대의 응현목탑


불사리를 모신 탑원사

성지순례안내
인도성지순례 9일, 13일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파키스탄 성지순례 7일
캄보디아, 베트남 6일
티벳 성지순례 8일, 22일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항상 성원해 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크로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 상 원 합장